**욥기   
모임 26: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6,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서론: 하나님의 의심스러운 행동? [00:22-2:06]**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아시다시피, 보기 시작하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읽기 방식으로 상황을 보고 그는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남자의 목숨을 걸고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멸망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이 인정함으로써 까닭 없이 욥을 파멸시킵니다. 그는 자신을 파멸로 이끈 죄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욥의 거듭된 탄원을 무시합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아니다"라는 말로 인식되는 말로 욥을 위협합니다. 그는 전설적인 힘과 신비를 지닌 두 생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뭐야? 그는 설명이나 변호 없이 그에게 번영을 돌려줍니다. 오 정말? 이것이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책의 독자들이 하나님의 그림과 씨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너무 파괴적이지 않으면 거의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까? 비참하게 끝날 것 같은 이 단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책이 하나님에 대해 계시하는 것[2:06-3:14]**

나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검색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나는 우리가 욥기에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도 욥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가 인물인 것처럼 인물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Behemoth와 Leviathan이 캐릭터인 것처럼. 그들은 인물이고 신은 문학에서 수사학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이다.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질문 재검토 [3:14-7:08]**

이제 우리가 언급한 겉보기에 부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챌린저의 활동에 대해 신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책은 천국의 장면에서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천상의 의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사용하여 그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야훼는 문학적 특성화로 묘사된다. 그는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왕실 인물로 묘사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문학적 모티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의 질문이 그의 무지를 드러낸다고 믿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보고를 받고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을 설정합니다. 문학적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와의 내기에 개입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 계정에서 이미 일부를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계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의해 수행된 문학적 역할은 내기라고 부릅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욥의 고통이 그가 한 일의 결과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책에서 펼쳐질 시나리오를 설정합니다. 질문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이 거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모두 문학적 설정으로 설정되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동기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까? 제 말은, 이 확장된 책이 욥의 동기를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는 알아낼 필요가 없다. 독자들에게 해결되고 있는 질문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의로운 사람이 세상이 무너져도 자신의 의를 유지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 확신이 없으십니다. 독자들은 욥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욥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독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경험과 상황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조사하고 있거나 조사하도록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천국의 장면은 질문을 움직이기 위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연극으로서의 직업 [7:08-8:08]**

하나님은 욥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 글쎄, 우리는 욥에 대한 대화에 대한 그의 서론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장면에 있는 모든 것은 문학적 구성물, 장치, 문학적으로 장면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시나리오입니다. 캐릭터는 연극의 캐릭터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저는 작업이 연극이나 드라마틱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설계되었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캐릭터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내러티브에 의해 형성되고 그들의 행동은 내러티브의 목적에 기여합니다.

**극단적인 특성화: 환원 불가능한 하나님[8:08-12:17]**

하나님은 욥이 그의 파멸을 시작할 때 그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추론할 수 없습니다. 문학적 시나리오는 그러한 모든 평가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자녀들을 잔인하게 없애 버리십니까? 단순히 요점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부주의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의 극단은 그의 의와 번영의 극단만큼이나 설득력 있게 묘사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극단이 중요합니다. 총체적 손실 외에는 초점이 되는 지혜 교육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욥이 가족이 아니라 재산만 잃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건강이 아니라 재산과 가족을 잃었다면 대화가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말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건강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이나 재산만 잃었습니다. 글쎄, 적어도 그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이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비유를 접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생각으로, 사실주의와 극도로 과장되고 믿을 수 없는 요소가 혼합된 상황을 구성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극단은 우리가 문학적 구성을 다루고 있다는   
숨길 수 없는 신호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 하나님은 욥의 간청을 무자비하게 무시하십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소송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면 그 책과 그 가르침은 심하게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탄원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무자비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해결책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메시지가 설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하나님은 설명을 하도록 욥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거부하십니다. 설명을 하는 것은 책의 메시지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세는 그가 욥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태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위협하여 잠잠하게 하십니까? 글쎄요, 야훼의 연설에서 그는 부인할 수 없이 위협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독자가 겁에 질려 비굴하게 비굴해지도록 의도한 것일까? 그것은 모든 종류의 염려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시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야훼의 자세는 신학적 목적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수단으로서 필요하다. 요점은 하나님이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그가 환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예수의 비유와 평행을 이룬다[12:17-15:12].**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예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요점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품꾼과 품꾼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땅 주인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고 추론할 수 없습니다. 임금 지급은 천국에서 사람들이 받는 대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만 일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임금은 비유가 말하는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슬기로운 관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호의를 베푸는 상사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하나님의 성품은 슬기로운 오퍼레이터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에서 그에게 주어진 문학적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무자비한 종은 “내 천부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끝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종을 고문하도록 내버려둔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유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품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야 청탁의 비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품은 도움을 꺼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잔소리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요점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것에서도 비유의 정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프로필을 실제로 수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유의 요점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욥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가 비유의 인물인 것처럼 저자가 그 인물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캐릭터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활동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목적 및 정책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에 있습니다.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 [15:12-16:21]**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간단한 방정식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 의해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지혜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지혜를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임을 확언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책의 잘못된 영역에서 정보를 끌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욥기의 신학을 이해하도록 이끌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다음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6,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16:21]